

보호자의 방심이 사고를 부른다

- 방·거실에서의 사고가 61%로 가장 많아 -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반 정도가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만 집에 두고 볼 일을 본 경우가 반 이상이나 되고, 어린이를 목욕시키다가도 자리를 비운 경우가 47%나 되는 등 보호자의 안전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이해각<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
■정리/오승건<소비자정보국>

어린이와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방·거실에서의 사고가 61%, 사고 당시 보호자가 주변에 있었던 경우가 79%나 돼 보호자의 안전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8년 한해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만 5세까지의 전국의 어린이 사고자 1천1백93명에 대한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가정 내의 어린이 사고의 72%는 작은 물건·침대·의약품·장난감 등 '물품'으로 인해 발생하고, 28%는 현관문·욕실과 화장실의 바닥 상태·계단 등 '주택 시설물'로 인해서 일어난다.

사고 발생률은 '남자'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보다 1.8배 정도 더 높고, 만 2~3세 때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5~10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5~7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타박상·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에 '입원' 하여 1주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가 21%, 사망한

어린이도 11명에 이른다. 사고 장소로는 보통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방(침실)' '거실'에서의 사고가 61%를 차지했다.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보호자가 주변에 있었던 경우가 79%나 됐다.

사망자 11명 중 만 2세까지의 어린이가 80%를 차지했다.

사망자 중 '이불·침구류'에 의해 호흡 곤란을 일으킨 경우가 3명, 플라스틱 구슬 등의 '작은 물건'을 삼킨 경우가 2명, 침대와 매트리스 사이에 끼여 질식사한 경우가 1명, 화재로 인한 연기에 질식한 경우가 1명, '욕상'과 '베란다'에서 추락한 경우가 2명, '욕조'물에 익사한 경우가 1명, '식품'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가 1명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례

방·거실

사례 보호자가 어린이(만 1세)를 방에 둔 채 잠시 부엌일을 하고 돌아왔다. 방에 와 보니 어린이는 플라스틱 구슬을 삼켜 사망한 후였다.

【사례 분석】

물품을 잘못 삼킨 사고자 1백 12명 중 76명이 장난감 블록·동전·바둑알·핀 등 먹어서는 안 되는 ‘작은 물건’을 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명이 질식 사고를 당했다.

주택에 대한 안전 확인 점검 결과, 방에 장난감이 부서져 조각으로 분리돼 어린이가 잘못 삼킬 위험이 있는 가구가 6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법】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물건은 어린이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부서진 장난감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폐기하고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구입해 주도록 한다.



사례 어린이(만 3세)가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옆으로 굴러 떨어져 벽과 침대 사이에 몸이 끼여 질식 상태에 빠졌다. 가족이 발견하여 병원에 옮겼으나 하반신이 마비됐다.

【사례 분석】

침대로 인한 사고자 58명 중 침대에서 떨어져 ‘골절’을 입은 사고자가 20명, ‘질식’된 사고자가

4명, ‘사망’한 사고자가 1명으로 나타났다.

주택에 대한 안전 확인 점검 결과, 방에 놓인 침대와 벽면 사이에 틈이 벌어져 질식 사고의 위험이 있는 가구가 20%나 됐다.

【예방법】

성인용 침대에 어린이(특히 만 2세 미만)들을 재워서는 안 되며, 성인이나 큰 아이와 함께 자게 해서도 안 된다. 침대와 벽면, 침대와 매트리스 사이에는 공간이 없어야 한다.



사례 방에 혼자 놀던 어린이(만 1세)가 방바닥에 둔 할머니의 관절염 약을 먹고 정신을 잃어 병원에 실려가 응급 조치를 받았다.

【사례 분석】

사고자 1천1백44명 중 1백12명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잘못 삼켜 일어난 사고였다. 이 중 24명이 의약품(9명)과 가정용 화학제품(15명)에 의한 사고였다.

주택에 대한 안전 확인 점검 결과, 의약품·화장품·세척제 등 가정용 화학제품이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있어 중독 사고의 위험이 높은 가구가 59%나 됐다.

【예방법】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보호 포장’ 제도를 도입해 어린이들이 열 수 없게 만들고, 어린이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음료수 병에 의약품·화학 제품을 담아 두는 것은 절대 피하고, 반드시 원래 용기에 보관한다. 전화기 옆에는 응급환자정보센터(1339번) 등 비상 연락 전화 번호를 적어둬 유사시에 대비한다.

베란다

사례 아파트 4층 베란다 방충망에 기대고 서 있던 어린이(만 4세)가 땅으로 추락해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중태다.



【사례 분석】

주택 시설물에 의한 사고자 3백36명 중 ‘베란다’ 사고자가 21명, 이 중 16명이 추락한 사고였다. 이 중 8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1명은 사망했다. ‘창문’에 의한 사고자 10명 중 9명이 추락한 사고였다.

주택에 대한 안전 확인 점검 결과, 베란다와 창문 근처에 어린

이가 닫고 올라갈 수 있는 에어컨·실내 운동 기구·박스 등이 놓여 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는 가구가 각각 28%, 58%나 됐다.

【예방법】

베란다 근처에는 가구나 물건들을 치워 두고 벌레 방지를 위한 방충망이 아닌 견고한 보호망이나 안전 창살을 설치해야 한다.

욕실

사례 욕실에서 두 어린이를 목욕시키던 중 보호자가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어린이(만 1세)가 욕조에서 익사했다.

【사례 분석】

욕실 욕조에 의한 사고자 7명 중 1명이 목욕중에 익사했다. 주택에 대한 안전 확인 점검 결과, 욕실이나 양동이에 물을 조금이라도 받아 놓아 어린이가 익사할 위험이 있는 가구가 39%나 됐다.

【예방법】

어린이들은 5cm 정도의 얇은 물에



도 익사할 수 있으므로 욕조·양동이 등은 항상 물을 비워두도록 한다. 물이 고여 있는 수세식 변기도 뚜껑을 닫아두어야 한다.

현관

사례 현관문 앞에서 두 어린이가 놀고 있었다. 한 어린이의 손이 현관문 가장자리에 있을 때, 다른 어린이가 문을 닫아 어린이(만 4세)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례 분석】

주택 시설물에 의한 사고자 3백36명 중 1백13명이 대문·현관문 등 ‘문’에 의한 사고였다. 이 중 94명이 문틈에 손가락이 끼인 사고였고, 손가락이 절단된 어린이가 15명이나 됐다.

주택에 대한 안전 확인 점검 결과, 문이 갑자기 닫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구가 76%였다.

【예방법】

문이 닫히는 강도나 속도 조절이 가능한 ‘도어클로저’를 설치하거나 ‘방문

고정 장치’ 등 영·유아용 안전 기구를 구입해 설치하면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설문 조사

안전 의식

거주하는 주택의 안전을 한국 소비자보호원에서 작성한 확인 점검표로 보호자가 직접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주택 45%가 영·유아의 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자의 안전 의식 및 행태에 대한 질문 응답 결과, 최근 1주일 동안 10분 이상 집에 어린이만 두고 1번 이상 개인 일을 본 경우가 54%나 됐다. 어린이를 목욕시키는 중에 자리를 비운 경우가 47%나 되는 등 잠시도 눈을 떼어서는 안 되는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방심으로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

사고 경험이 2번 이상 있는 경우가 35%,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험을 한두 번 이상 경험한 경우가 83%나 됐다. 만 5세까지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는 자녀가 1명인 가구와 비교해서 사고를 10% 정도 더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용품에 의한 사고 경험은 ‘자전거’에 의한 사고가 25%, ‘유모차’ 20%, ‘보행기’ 18%, ‘실내 간이 그네’ 18%, ‘식탁용 높은 의자’ 10%, ‘유아용 침대’ 5%, ‘이층 침대’ 3% 순으로 나타났다. ㉸